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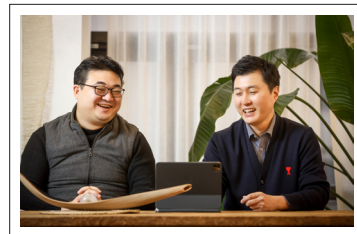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는
교정의 가치



Re: Start

끝에서 시작으로

교정은 끝이 아닌 시작의
공간으로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월간 <교정>
1월호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교정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유합니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여주교도소
- 12 **생각의 접점**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여주교도소
- 14 **응원의 선물**
조율로 완성하는 아름다운 조화
여주교도소 총무과
- 18 **물고 답하다**
비블수룩 더욱 중요한 긍정과 여유
여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성화 & 교도 이현승
- 22 **교정의 가치**
명화로 전하는 희망의 시나리오
여주교도소 교정위원 장희남 목사
- 24 **취미의 공유**
보디빌딩으로 키우는 일상의 '활력 근육'
대구교도소 교위 이상록
- 28 **전문가에게 묻다**
부동산 세금 정책부터 절세 솔루션까지
맞춤 세무 상담
수원구치소 교위 최대운
- 32 **나도 패션왕**
특별함을 더할 추억을 남기다
서울구치소 교감 허연
- 36 **교정 안에서**
그림과 이야기에 수용 생활의 변화를 담아내다
수용 생활 카툰 공모전 '담 안에 그림'
- 38 **교정의 일기**
나도 처음이라
군산교도소 교감 고석규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ind

- 40 **새로운 만남**
새롭되 낯설지 않게 법과 사회를 연결하다
박일환 전 대법관
- 44 **여행 속 휴식**
눈꽃 여행
겨울로 떠나는 당신에게
- 48 **문화가 중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힐링 영화
- 50 **맛의 탐방**
추울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겨울의 별미
대구
- 52 **교정 리포트**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①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1월호 Vol. 548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유영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1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발견하다 보다 나은 내일 만드는 여주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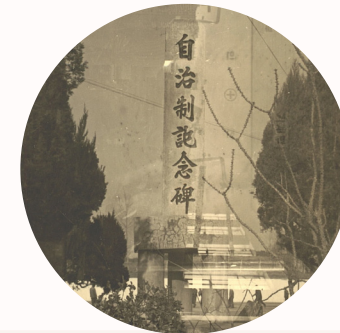


여주교도소는 우리나라 교정사에서 처음으로 수용자에 대한 현대적 개방 처우를 실시한 수원교도소의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2001년, 수원에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혜의 땅 이곳 여주로 이전해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지켜 갑니다.

수용자 자치제의 가치를 이어가다

1964

2022



여주교도소의 전신인 수원교도소는 수용자 자치제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수용자 자치제 기념비를 세워 뜻을 기렸습니다. 현재는 여주 이전과 함께 기념비를 옮겨와 그 정신을 널리 전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다

“ 인권의 가치와 법치의 조화가 온전하게
이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 여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으며 장애재활 프로그램, 최고의
심리치료 및 상담, 집중인성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





전문적 교육으로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추구해
공익을 이룹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정을 이루다

“수용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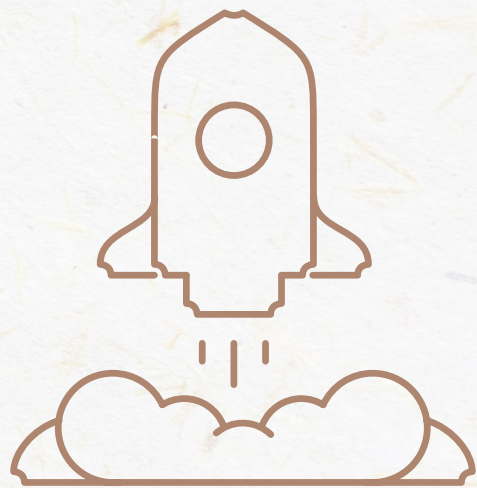


“여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전과 신체 건강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쓰며, 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욱 안전한 교정시설로 발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여주교도소



‘시작’은 늘 설렘과 긴장감을 동반한다.
낮선 경험과 불확실함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이를 극복했을 때의 보람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여주교도소 직원들에게 시작은 무엇일까.
월간 <교정> 편집실에서
2022년의 시작에 대해 물어봤다.

나에게 _____ 시작은 []이다!



마음가짐이다

교감 김기남

시작은 늘 설렘을 가져오잖아요.
벌써 재미있을 것 같은 올해 계획을 많이
세워 뒀어요. 그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기대감이다

교위 이관우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했지만,
이번에는 예쁜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멋진 일이다

교사 하승환

여주교도소 직원들끼리 바디 프로필
촬영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달이 제
차례인데, 식단 조절도 잘하고 있고, 점심 식사 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요. 사진 촬영이 무척 기대됩니다.



새로움이다

교감 이상용

1년 6개월째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다행히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았죠. 새해에도 그랬으면 합니다.



최고의 선택이다

교도 홍재성

7년간 연애를 했어요. 여주와 부산을 오가
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2022년의 시작을
멋지게 만들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도전이다

교도 채승진

운동하며 근육량을 늘리고 있었어요.
노력한 것과 다르게 잠시 정체기가
온 적도 있지만, 새해에는 다양한 것에
도전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요.



열정이다

교도 양종문

총무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년에는 부서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가짐도 갖춰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조율로 완성하는 아름다운 조화

여주교도소 총무과

악기가 제 소리를 내려면 각 음을 세심하게 다듬는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총무과는 '여주교도소의 조율기'라 할 만하다. 각 과가 원활하게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협력에 시너지를 더하는 중재자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입소에서 출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여주교도소 총무과는 그 중심에서 각 과의 역할과 업무를 지원하고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데 앞장선다.

“여주교도소 총무과는 문서, 인사, 지출, 수용 기록, 전산, 민원, 구매, 보관금품, 부속실 등 교도소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임무를 두루 맡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별도의 과로 분리돼 있는 수용 기록과 민원봉사 업무도 저희의 몫인데요. 여주교도소 총무과 교정공무원 25명은 각각의 업무를 통해 교도소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중학 과장이 내세운 총무과의 업무 중점사항은 ‘조율’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성향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피를 나눈 가족의 생각도 서로 다른데, 사회에서 만난 조직의 구성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총무과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도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시야와 경험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각 과의 상황을 조율해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한 환경이죠. 저희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각 과의 역량과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유관 부서가 더욱 끈끈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하면 총무과 직원의 상당수가 ‘평화로운 중재자(INFP)’로 분류된답니다. (웃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대응

건강과 안전은 수용자 교화의 필수 요건이다. 그렇기에 여주교도소 총무과는 최근 확산세가 두드러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교도소는 모든 과를 아우르는 코로나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그 안에서 교도소 내외부 방역, PCR 검사, 유관기관 협조, 신입 수용자 및 출소자 건강 점검, 집견민원인 관리, 교도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신속 정확하게 주도한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성이 강해진 요즘에는 거리두기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대응팀 주간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대응팀 주간회의에는 소장님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교정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물론 모두 한자리에 모여 회의할 때에도 직원 간 거리두기, 마스크 항상 착용, 비말 차단막 설치 등의 방역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졌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소장실과 상황실, 각 과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여주교도소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실제 상황 발생 시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지난 10월 말 교정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코로나대응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2회에 걸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의 PCR 검사가 뒤따랐다. 덕분에 여주교도소는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없이 빠르게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총무팀의 업무 조율 능력, 각 과의 헌신적인 협력과 전문성이 하나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기적이다.

따스한 팀워크로 행복을 빛다

여주교도소 총무과는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하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마주한 동료에게 기꺼이 지원의 손길을 뻗는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식이나 외부 활동은 못하지만, 매주 수

요일 ‘칭찬합시다’ 행사를 통해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사무실과 주변 환경을 청소하며 그간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총무과에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정공무원이 많습니다. 지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남 교감은 1986년부터 근무하며 총무과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베테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박혜정 교위는 3년 동안 애지중지 기른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했죠. 얼마 전에도 머리카락을 기부했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직원이 성실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만한 복이 또 있을까요?”

그간 여주교도소를 위해 헌신한 총무과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월간 <교정>에서는 발마사지기, 커피메이커, 가습기 등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총무과는 이번에 받은 선물을 여주교도소의 사랑방인 휴게실에 배치해 모든 동료와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여주교도소와 동료들을 아끼는 총무과의 따스한 진심이 온전히 느껴지는 마음 씀씀이다.

총무과는 코로나19로 지친 여주교도소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2022년을 준비하고 있다. 구성원 간 상호 교류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캠페인, 무인 바자회 등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동료애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겠다는 총무과 교정공무원들. ‘보다 행복한 여주교도소’를 향한 이들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MINI INTERVIEW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지금까지처럼 서로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총무과를 만들어 갑시다!”

최중학 총무과장

바쁠수록 더욱 중요한 공정과 여유

여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성화 & 교도 이현승

새해의 출발선에서 시간을 고민하다

이현승 교도 — 팀장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화 교감 — 보안행정 서무 일을 보느라 정신없을 이 교도가 짬 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시간을 마련해야지. 나는 오히려 이 교도에게 고마워. 선배와의 시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조언도 잘 받아들여 주니 말이야. 그럼 오늘의 고민을 한번 들어 볼까?

이현승 교도 — 팀장님은 1988년 임용 이래 33년 동안 수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헤쳐 오셨잖아요. 여주교도소에 오신 뒤로도 작업 팀장, 개방작업장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후배들의 모범이 되셨고요. 새해를 맞아 일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팀장님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성화 교감 — 이 교도가 시간 활용법에 대해 묻다니, 의외인걸? 누구보다 하루를 알뜰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교도가 어떻게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지 한번 들어 볼까?

이현승 교도 — 저는 업무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활용하는 편이에요. 미리 하루의 계획을 세워 놓고, 스스로 정한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합니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안행정 서무는 월말이나 연말이 더 바쁘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미리 업무를 시작해요. 이른 아침에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집중력을 한층 높일 수 있으니까요. 피로가 쌓이고 업무 몰입도가 낮아지는 오후에 비해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세 아이를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웃음)

평소 부자지간처럼 살갑게 지내는 이성화 교감과 이현승 교도가 여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의 휴게실 '카페여주'에서 만났다.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새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던 이현승 교도가 이성화 교감에게 조언을 요청한 것. 이성화 교감이 후배에게 전한 최고의 시간 활용법은 '공정과 여유'였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Positive

효율성과 보람을 모두 잡는 마법, 긍정과 여유

**말씀을 들으니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어렵פות이 알 것 같아요.
긍정과 여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교정공무원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이성화 교감 — 역시 이 교도는 훌륭해. 굳이 내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사는 후배를 보니 정말 뿌듯하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 멋지게 해낼 수 있어. 여기에 올바른 마음가짐까지 더한다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이현승 교도 — 제가 팀장님께 여쭙고 싶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바쁨 속에서도 매사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며 더욱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성화 교감 — 가장 먼저 '긍정'을 강조하고 싶어.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 긍정은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펼쳐야 하는 교정공무원에게 특히 중요한 덕목이지.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용자들을 '교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출소 후 그들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 혼란스러워질 거야. 요컨대 긍정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마법이자, 수용자들의 출소 후 바른 인생과 사회의 안정을 불러오는 지름길이지.

이현승 교도 —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신경 쓰느라 미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긍정적인 자세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



자 교정교화라는 교정공무원의 목표에 한발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네요!

이성화 교감 — 이 교도가 그렇게 말해 주니 기쁘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비벨수록 '여유'를 가지는 게 좋아. 내 취미가 악기 연주라는 거 이 교도도 알고 있지? 한번은 트럼펫을 배우는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승님이 '너무 급하게 분다'고 말씀하시더군. 그래서 조급함을 누르고 한결 여유롭게 배웠더니, 금세 원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순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지.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일이 꼬이는 법이거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승 교도 — 돌이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도 무언가 허전하고 쫓기는 기분이 들었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어렵פות이 알 것 같아요. 긍정과 여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성화 교감 —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 교도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보안행정 서무는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교정공무원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그래도 요즘에는 일에 많이 적응됐지? 짬짬이 여러 고민거리를 얘기하던 게 옛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이현승 교도 — 시간 참 빠르네요, 팀장님. 교정공무원에 합격한 후 연수원에서 만난 룸메이트 동기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있는데, 그곳에 계실 때 동기 적응에 많이 힘써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선배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걸 알았을 때 무척 기뻐요. 덕분에 보안행정 서무 일을 막 맡았을 때 한결 친근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특히 이 또한 지나갈 거라며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성화 교감 —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이야. 그 말을 기억하고 열심히 근무해 왔더니, 든직한 후배가 곁에 있다는 게 새삼 실감 나네. 교정공무원은 쉽지 않은 직업이지만, 긍정과 여유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만큼 큰 보람을 느끼는 일도 드물어. 3년 차에 접어들었으니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대화를 떠올리고 이겨 낸다면 선배로서 그만큼 고마운 일도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맛있는 커피와 함께 기다릴게.

이현승 교도 —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선배님이 먼저 걸으신 길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명화로 전하는 희망의 시나리오

여주교도소 교정위원 장희남
(여주 우리교회 담임목사)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장희남 교정위원은 인성교육 과목 '영화 치유'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그 순간을 선사하고, 출소 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도록 그들을 인도한다. 저마다의 희망 시나리오가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 나와 꿈을 돌이켜 보는 값진 시간

여주 우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장희남 교정위원은 때마다 여주교도소를 찾는다. 인성교육 과목 중 하나인 '영화 치유'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말 그대로 영화를 통해 수용자들의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장희남 교정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고르고 편집한 30분 분량의 영화 요약 영상을 수용자들과 함께 본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영화는 보는 이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빠를 업고 학교에 가다>라는 영화를 보면, 어릴 적 아빠 등에 업혀 강을 건너며 학교를 다녔던 아들이 얼마 뒤에는 반대로 중풍에 걸린 아빠를 업고 학교를 오갑니다. 그 내용 자체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사이에 흐르는 깊은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작품이죠. 이 영화를 본 수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지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 나아가 가정과 효의 의미에 대해 곱씹게 됩니다.” 영화를 시청한 직후에는 감동을 삶의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이어진다. 수용자들에게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한 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각자의 인생 계획이기에 다른 수용자들에게 발표할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나마 출소 후의 미래를 그려 보고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재정립해 보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수확이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밑그림을 구상하고 출소하는 것과 아무런 계획 없이 사회에 나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좋은 영화를 통해 각자의 내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인생 그래프, 명상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독려했죠. 이러한 과정을 두세 번 거치면, 수용자들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쨌면 수용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쫓겨났을 달게 치른 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 사람을 향한 굳건한 애정

장희남 교정위원과 여주교도소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교정공무원이 어느 날 찾아와 수용자 인성교육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가 교육대학원에서 문화교육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여러 교정기관을 다니며 수용자 교화 활동에 힘쓴 경험이 있기에 선뜻 수락하고 영화 치유 과목을 맡았다.



“사실 처음에는 꽤 긴장했습니다. 수용자 한 명 한 명을 상담할 때와 달리 수십 명 수용자 앞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그럴수록 죄의 유무가 다를 뿐,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덕분에 수업을 진행할수록 마음이 편해졌고, 수용자들의 눈빛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성심껏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기쁨도 찾아왔다. 영화 치유를 수강한 수용자들이 담당 교정공무원을 통해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수용자들의 인생길과 영화 치유를 들으며 느낀 감정이 빼곡히 담긴 글을 읽으며, 장희남 교정위원은 교정교화 활동의 효과를 실감했다. 그가 인성교육을 더욱 폭넓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수용자들은 행기를 채운 후 사회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따라서 인성교육은 수용자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성교육으로 인해 가치관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수용자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인성교육이 폭넓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많은 수용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장희남 교정위원은 지금도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서로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힘껏 나아가자”며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함께 듣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신 또한 수용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정위원으로 남겠다는 각오를 밝힌 그의 얼굴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보디빌딩으로 키우는 일상의 '활력 근육'

자타공인 대구교도소의 '몸짱'인 이상록 교위는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쇠질(근력운동을 일컫는 신조어)'에 힘을 쏟는다. 덕분에 전문 보디빌더와 견주기에 부족함 없는 몸을 자랑하며, 공신력 있는 보디빌딩 대회에서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 보디빌더로서의 활발한 활동이 일상과 업무의 커다란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대구교도소

교위

이상록

프로 선수들과 겨루는 교정공무원 보디빌더

떡 벌어진 어깨, 두드러지는 근육, 어떤 옷이든 잘 소화하는 몸매. 사람들은 건강미 넘치는 탄탄한 몸을 원한다. 이상록 교위는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 '몸짱 교정공무원'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의 몸 상태는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는 하루 종일 운동에만 매달리는 전문 보디빌딩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국에 몇 안되는 직장인 보디빌더다.

이상록 교위는 수많은 보디빌딩 대회 수상을 통해 남다른 육체미를 대내외적으로 검증받았다. 2020년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클래식 보디빌딩 -175cm 체급에서 3위를 거뒀고, 2021년 미스터 YMCA 선발대회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3위에 올랐다. 지역대회인 미스터 대구 선발대회에서는 몇 년 전 이미 1위를 차지했다. 전문 보디빌더들이 총출동하는 각종 대회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제치고 순위권에 이름을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평소에는 생활체육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루 한 시간 운동하고 일반식을 먹으며 어느 정도 몸을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 쓰죠. 그러다가 대회 5개월 전부터는 서서히 고백을 조이는데요. 이 기간에는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잠을 잔 뒤 새벽 2시에 일어나 3~4시간 운동하고 출근합니다. 식단 조절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오로지 일과 운동에만 전념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는커녕 가족들 얼굴도 잘 못 보죠. 이렇게 해야만 온종일 운동에 신경 쓰는 전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은 크게 일반부와 클래식으로 나뉜다. 일반부는 근육의 크기를 중시하는 반면, 이상록 교위의 주 종목인 클래식은 근육의 갈라짐과 균형 등 인간 본연의 육체미를 주로 보기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의 선전이 더욱 대단한 이유다.



5개월의 비지땀으로 짜릿함을 완성하다

이상록 교위는 학창 시절 유도 선수로 활약했다. 아쉽게 유도학과 진학에 실패해 선수로서의 꿈을 접었지만, 몸속에 각인돼 있는 '운동 DNA'는 지워지지 않았다. 대학교 입학 후 흐트러진 몸을 단련하기 위해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한 달 동안 운동하는 모습과 몸 상태를 지켜보던 관장이 그에게 대뜸 말했다. “앞으로는 돈 내지 말고 운동 하러 와라!”

“공짜로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어린 마음에 엄청 기쁘더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당시 헬스장을 다니던 몸 좋은 한 형님에게 운동법을 배우다가 친해져서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저런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관장님과 형님의 도움을 받아 1995년 처음으로 미스터 대구 선발대회 대학부에 나왔습니다.”

첫 대회부터 4위에 오르며 될성부른 떡잎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인 그는 이듬해 일반부 -70kg 체급 5위를 거머쥐었다. 군대에 다녀온 뒤에도, 청송교도소(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으로 첫발을 뗐을 때도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프로 선수로 활동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교정공무원 생활이 그와 아주 잘 맞았다. 고심 끝에 그는 ‘전문 보디빌더와 겨루는 직장인 보디빌더’라는 어려운 길을 걸기로 했으며, 이 길은 그가 임용된 2000년 이후 줄곧 이어지고 있다.

“가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대에 섰을 때의 짜릿함이 좋아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5개월 이상을 열심히 노력한 뒤 멋지게 만들어진 몸을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선보일 때, 바로 그 순간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일과 취미의 건강한 조화

이상록 교위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이 보디빌딩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회를 준비할 때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한다.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에 운동함으로써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남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일과 보디빌딩을 병행하는 이상록 교위를 신기해하지만,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하기에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꾸준한 운동은 심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몸이 좋아지니 교정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대로 교정공무원 생활은 제가 지금껏 보디빌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밑바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급여가 있기에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고, ‘교정공무원 보디빌더’라는 타이틀이 있기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운동합니다. 저에게 있어 교정공무원과 보디빌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인 셈이죠. (웃음)”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상록 교위는, 이를 몰감 삼아 정년퇴직 후의 삶을 그려 나가고 있다. 전문 선수를 육성하고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PT 전문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계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상록 교위. 인터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그가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 시간만 꾸준히 투자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다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겠지만,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헬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좋아하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킵시다!”

<취미의공유> 코너참여신청하기!

<취미의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Tip

이상록 교위가 전하는 헬스 Tip 3

- 1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운동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고 참고하세요.
- 2 운동 및 식단 정보를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세요.
- 3 정보를 나에게 맞게 변형하려면 먼저 내 몸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내 몸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모으세요.



최대운

수원구치소 교위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



부동산 세금 정책부터 절세 솔루션까지 맞춤 세무 상담

수원구치소 교위 최대운 & 신한금융투자 진재만 수석연구원(세무사)



급변하는 부동산 세금, 명확한 정보 중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수시로 변하므로 거래 당사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수원구치소 최대운 교위가 세무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정책 바로 알기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맞춤 상담이 진행된 현장을 소개한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부동산 세금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있듯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 계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세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세제의 틀과 기초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정보와 지식을 쌓아 놓아야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최대운 교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전문가로 신한금융투자 진재만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그는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최신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이나 시행령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다 보면 불안정한 부분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사소한 판단 하나에도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취득·보유·양도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 절세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하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Q 2018년 경기도 ○○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2020년 8월 잔금 납부 후, 11월에 등기 등록을 완료했고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거주를 해야 할까요?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체크해야겠죠. 교위님의 아파트가 위치한 ○○시의 경우, 2020년 6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위님은 ○○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거주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Q 취득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 시점인가요?

A 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잔금 납부일과 등기 등록 신청일이 다를 경우,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교위님의 실제 취득 시점은 2020년 8월인 것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 기간 요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위님은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매도 금액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하여 양도가액이 12억 원(2021.12.7. 이전 양도분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교위님이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는 양도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최신 세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방향

Q 향후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모델에 따라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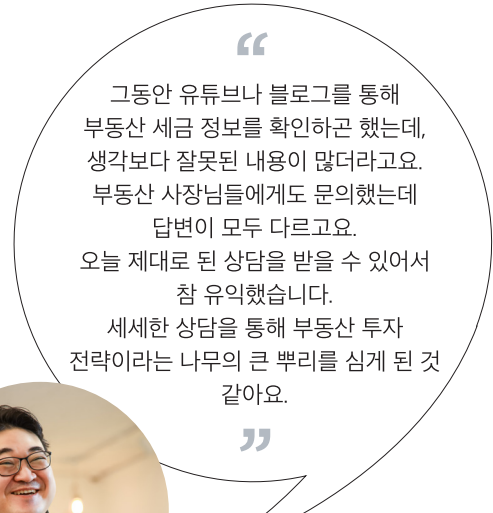
A 수익 모델을 결정할 때는 결국 투자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방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이냐에 따라 각각 취득세, 임대소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에 투자한 경우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할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8%입니다. 주택 외 수익형 부동산 취득세가 4%인 것과 비교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금 정책은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주택 취득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2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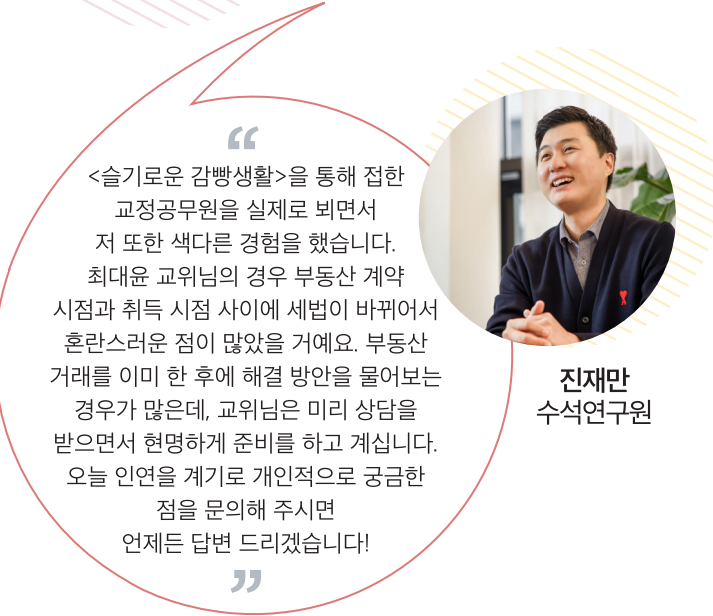
A 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 폭이 커지게 됩니다. 임대 수익을 고려한다면 주택을 월세 혹은 전세로 임대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주택까지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는 일반적으로 2주택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절세를 할 수 있겠군요.

A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다주택 취득보다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세율이 없어 주택보다 낮죠. 양도 차익은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정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거둘 것인가, 시세차익을 거둘 것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주택시장이 거세 절벽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만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대운 교위



진재만 수석연구원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고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특별함을 더할 추억을 남기다

서울구치소 교감 허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허연 교감. 오늘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스타일 변신에 나섰다. 그동안 생각만 했을 뿐, 시도하지

않았던 옷을 입어 보며 새로운 모습을 찾은 그의 하루를 소개한다.

글 이원복 사진 이정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월간 <교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

월간 <교정>에서 스타일 변신 코너인 '나도 패션왕'의 참여자를 찾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 없이 참여 신청을 했다는 허연 교감. 교정 공무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평소에 월간 <교정>을 꼼꼼히 챙겨 보고 있었어요. 인터뷰 코너에 나와서 취미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멋지다고 생각했죠.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도전할 스타일은 중후한 중년의 모습이 드러나는 오피스룩과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실용적인 북유럽 스타일이다.

“젊을 때는 화려한 옷이나 청바지를 자주 입을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오늘 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옷을 걸친 채 카메라 앞에 선 허연 교감. 잠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어색함이 났지만, 플래시가 몇 번 반짝이자 점차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가족과 함께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패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교정공무원으로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페어아일 패턴 니트 & 레더 블루중 점퍼
포근한 느낌을 주는 페어아일 패턴 니트와
레더 블루중 점퍼에 캐주얼한 롤업 데님
그리고 레더 로퍼로 연출한 북유럽 스타일
이다. 화사한 색깔을 더해 활동적이면서
젊은 느낌을 살렸다.



브라운 체크 패턴 슈트 & 컬러 니트
 브라운 체크 패턴 슈트에 셔츠와 레드 컬러 니트를 입고 체크 머플러로 포인트를 준 겨울 오피스룩. 구두까지 다크 브라운으로 통일해 신체 비율을 길어 보이게 연출했다.

교정에서 삶의 의미를 배우다

허연 교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보안과 미결2팀 부팀장으로서 수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교정교화에 힘쓴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온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고충도 있었다.

“예전에는 수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옷차림만 보고 선입견을 품었죠. 하지만 근무하면서 수용자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수용자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도 깊어졌다.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가능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먹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전부 좋은 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상의 촬영을 마친 허연 교감은 이어 중후한 느낌의 오피스 룩으로 갈아입었다. 갈색 계열의 정장에 체크 머플러를 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나이에 맞는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신발과 가방도 아주 멋지고요. 이렇게 입고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일할 의지가 샘솟습니다.”

낮설었지만 새로움을 경험한 시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고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허연 교감에게는 정년퇴임에 대한 고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퇴임까지 남은 시간은 6년 정도. 서두를 필요는 없음에도 허연 교감은 벌써 퇴임 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좋은
 시간이었어요. 매우
 기쁩니다**

“정년퇴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예요.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죠. 그중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아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제가 부동산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이 마무리될 무렵, 처음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취하는 포즈가 꽤 자연스럽다.

“평소에 근무복이나 등산복만 입다가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으니, 상당히 젊어진 기분입니다. 입지 않았던 옷이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낯설었는데,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교정공무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것이
 궁금
 하다**
**근무복을 입지 않는
 주말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주말에는 주로 등산복을 입어요. 등산복만 10벌 이상 있죠. 주 1회 이상은 꼭 산에 다녀오고요.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남양성모성지로 트레킹을 다녀왔어요. 산행 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도 나눴죠. 산에 오르며 땀을 흘리면 일주일 내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림과 이야기에

수용 생활의 변화를 담아내다

수용 생활 카툰 공모전

‘담 안에 그림’

교정은 수용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수용자에게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용 생활 카툰 공모전 ‘담 안에 그림’을 열었다. 공모전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수용 생활 중 변화된 자신의 삶을 카툰으로 표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글 이원복

카툰으로 표현한 수용 생활의 변화

교정본부가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수용 생활 카툰 공모전 ‘담 안에 그림’의 수상자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총 306건의 접수 작품 중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희망상 등 2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됐다. 감동과 웃음, 교정공무원의 교화 활동상, 직업훈련·심리치료·교정교화 프로그램 경험담 등이 담겨 있었으며, 수용자들은 카툰을 그리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여주교도소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희망상 4명으로 총 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



윤○○
담을 보며
후회했던
지난날을 담다

“큰 상을 바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참가하는 공모전이니 즐기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림 관련 공모전에 여러 번 참가했지만, 죄를 짓고 수용되니 공모전이 참 그리웠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스토리를 고민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뉘우쳤고, 앞으로 절대 죄는 짓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했지만, 저에게는 카툰이라는 장르가 생소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공모전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하신 계장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공모전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봤고 사회에 복귀해 할 일도 생겼습니다.”

우수상

박○○
카툰으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다



“그림을 그리면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은 교정생활을 잘 보내게 해 줄 힘을 얻었습니다. 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정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교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점점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감정을 카툰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 카툰을 보는 다른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 카툰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장려상



희망상

나도 처음이라

●
큰 애야, 고맙다.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한
1년은 더 산 것 같다.
많이 힘들지, 형제간
우애해라.

●
아버지, 나도 아들
역할이 처음이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는 두 번째니
더 편안히 모실게요.
하늘나라에서 염려
마시고 웃고 지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나는 동감한다. 담배를 50년간 피우신 탓일까? 2008년 봄부터 아버지는 폐기종과 천식을 동시에 앓으셨다. 특히 겨울철에는 숨쉬기가 매우 곤란해 산소 발생기를 집에 설치하고, 잠깐 앉아 있거나 거의 누워 있는 상태로 간신히 호흡할 정도였다.

2016년 11월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시기 2년 전부터 아버지의 병환은 밤과 낮이 없었다. 좁은 병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셋이 함께 생활했다. 그나마 나는 회사로 출근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24시간을 아버지 곁에 머무르면서 대소변을 처리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경질적인 말까지 듣게 되면서 상처로 인해 어머니께서 우는 날이 많았다. 주변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을 메시려고 그런 거라 말을 건넸으나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숨이 멎추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후회 없이 살아왔고, 내 가족으로 있어 줘서 고맙다. 다시 태어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유언하는 광경은 허상인 것 같다. 나는 아버지한테 별다른 유언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새벽 2시를 기억한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 강한 진통제에 취해 잠만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를 깨웠다. 나는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는 줄 알고 부스스 눈을 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큰 애야, 고맙다.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한 1년은 더 산 것 같다. 많이 힘들지, 형제간 우애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난 너무 졸린 나머지 무성의하게 “예”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버지, 꼭두새벽인데 얼른 주무세요. 저 내일 회사 가서 일해야 해요. 그만 잘게요. 아프시면 진통제 주사 간호사한테 다시 주라고 말할 거니 잠기 힘들면 깨우세요”라는 말만 하고 다시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까칠해진 얼굴의 수염을 면도해 드리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새벽에 잠이 깨서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출근을 했다. 출근 후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버지가 운명하셨다는 어머니의 전화 연락을 받았고, 삼 일간의 장례를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이 없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의 지날 때쯤 급제한 듯 가슴이 멍멍했다. 아버지가 병환 중 기거했던 안방에서 조용히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더 편안히 모셨어야 했는데... 어머니에게 미루고, 회사 간다고 외면하고, 아버지 아프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힘든 것만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돌아가 후 2017년 8월, 어머니는 그간 미뤘던 허리 수술을 했다. 수술 전 MRA(자기 공명혈관조영술) 촬영을 했는데 폐 부분에 이상이 보인다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 대학병원에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폐암 말기며 오래 사셔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받으며 잘 버티고 계신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아버지의 병간호 때 크나큰 실수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버지, 나도 아들 역할이 처음이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는 두 번째니 더 편안히 모실게요. 하늘나라에서 염려 마시고 웃고 지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박일환

전 대법관



박일환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5기로 1978년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이듬해인 2013년 7월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법률상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펴냈다.

새롭되 낯설지 않게 법과 사회를 연결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쓰임새를 고쳐 써야 할 단어들이 있다. '은퇴'도 그중 하나다. 국어사전에서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으로 풀이하지만, 이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다. 박일환 전 대법관만 해도 퇴임 후 변호사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추가해 이전보다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법'이라는 사회와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박일환 전 대법관을 만났다.

글 민경미 사진 이정도

대법관 출신 1호 유튜브

박일환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06년 최종심의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대법관에 임명돼 2012년 퇴임하기까지 무려 35년간 법복을 입었다. 퇴임 후에도 변호사로 포지션을 변경했을 뿐 법조인의 삶은 계속됐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조인으로서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 법을 매개로 세상과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소통하는 전환점을 맞은 까닭. '대법관 출신 1호 유튜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였다.

"은퇴 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5년에 걸친 법관 생활을 정리하고, 그간의 관례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건네는 책을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딸의 권유로 유튜브에 도전하게 됐죠."

2018년 12월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지만, 구독자들이 반응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특히 처음 서너 달은 조회 수 변동조차 없다시피 해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이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 시 부여되는 실버 버튼까지 획득했다. 맨 처음 구독자 수 1,000명을 목표로 삼았던 그의 채널은 어느새 13만 7,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2021년 12월 30일 기준).

"유튜브 채널에는 제 이름 대신 '차산선생법률상식'이란 타이틀을 붙였어요. '차산'은 고등학생 때 한시를 가르쳐 주던 할아버지가 붙여 주신 호예요. '그냥 저 산', '동네에 있는 평범함 산'이라는 의미처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콘텐츠 또한 어렵고 거창한 법률보다는 가족, 재산, 의료, 취미, 산재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 중심의 법률 상식을 한 달에 3~4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영상 재판, 간단한 소송 처리에 편리한 재판 방식

그 연장선에서 박일환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18일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춰 전면 실시한 전국 교정기관 영상 재판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눈여겨보고 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는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비롯해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까지 가중됐다. 영상 재판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받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인 그는 전국 교정시설의 영상 재판 본격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용자 인권 보호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재판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간이공판절차 등 비교적 간단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편리

한 방식이라 보고요. 모든 국민은 공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만큼 영상 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얼마 전 그는 전 대법관과 변호사, 유튜브에 이어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를 추가했다. 퇴임 직후 첫 계획으로 삼았다가 유튜브로 대체했던 책 발행을 마침내 이뤄 낸 것.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제목처럼 일반 사람들이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펴냈다.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여기에 덧대어진 변호사 활동, 무엇보다 유튜브로서 사람들의 생생한 궁금증과 고민을 접한 경험을 담았다.

“요즘엔 사람들이 계획을 물으면 ‘다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법조인으로서도, 은퇴 이후 계획한 바도 정말 다 이뤄져요. 앞으로는 무언가를 새로 계획하기보다는 변호사이자 유튜브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평생 법조계에만 몸담았다가 문화계로 진출했다는 너스레로 삶이 그만큼 풍성해졌음을 말하는 그는 덕분에 이전에 몰랐던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라며 활짝 웃었다.

법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유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주로 과거 재판한 판례에서 찾는다. 최근 부각하는 사회적 이슈 중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판례가 나오면 발 빠르게 그와 관련한 법률을 다루기도 한다.

그의 채널이 꾸준한 관심 속에 구독자 수를 늘려 나가는 데는 전직 대법관에서 오는 묵직한 신뢰에, ‘차산’이라는 호에 어울리는 푸근하고 따뜻한 인사와 말투, 여기에 생활밀착형 법률 상식이라는 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결과인 것. 실제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법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상생활 관련 법률 상식을 다루는 것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단순히 관련 법률을 알려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유도한다. 오랜 법관 생활 동안

종종 체감했던, 재판 후 좀 더 침예하게 벌어지는 양형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하지만, 국민 체감상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형법을 만들었던 50여 년 전에는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때 기준으로 10, 20년 형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 예전 기준의 양형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처럼 법률 저변의 사정을 알려 재판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 정서에 맞아떨어지는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경험을 토대로 법률 관련 지식을 나누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일방적인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댓글로 올라오는 구독자들의 반응과 궁금증을 통해 새로운 이슈를 감지하며, 현역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눈꽃 여행 겨울로 떠나는 당신에게

한겨울 바람이 매섭다. 춥다. 이왕 추울 거, 눈이라도 황홀했으면 해서 겨울이면 은빛으로 더 자주 두툼하게 반짝거리는 눈꽃 여행지 4곳을 골라 모았다. 함박눈 펄펄 내리는 날 찾아보면 좋을 곳이다. 얼음처럼 서리꽃 환히 돋는 날에도,

글 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당신에게 드려요, 이 서리꽃 전북 무주 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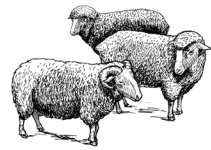
동화처럼 예쁜 겨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안개가 서린 바람이 그리고 눈과 추위가 만드는 눈꽃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을 동반한 눈꽃 트레킹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해발 1,520m의 설천봉까지 단숨에 오르는 곤돌라가 있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1,614m)까지 0.6km(편도 약 30분 소요)만 오르면 되는 것. 운이 좋으면 눈꽃과 함께 바람을 따라 밀려다니는 '운무 쇼'도 감상할 수 있다. 날이 쾌청해 시야가 트인 날이라면 내치 중봉까지 올라 보는 것도 좋다. 중봉(1,594m)은 정상인 향적봉과 함께 덕유산을 대표하는 봉우리로, 향적봉에서 1.1km(편도 약 30분 소요) 거리다. 곤돌라(063-322-9000)는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탑승 일자와 시간을 지정·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은 무주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예매 후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어죽은 빼놓을 수 없어요



무주를 대표하는 별미는 어죽이다. 싱싱한 민물 고기를 솥에 넣어 반쯤 익힌 뒤 뼈를 고르고 곱게 갈아 찹쌀과 수제비, 인삼 등을 넣어 푹 삶아 낸다. 맛집으로 알려진 곳은 섬마을(063-322-2799). 주인장이 직접 잡은 빠가사리·꺾지 등으로 끓여내 고소한 맛이 더하다.

양 떼도 예쁘고 설경도 예쁜
강원 평창 대관령양떼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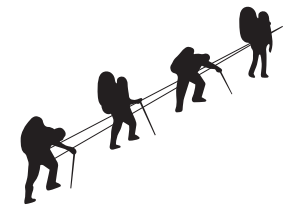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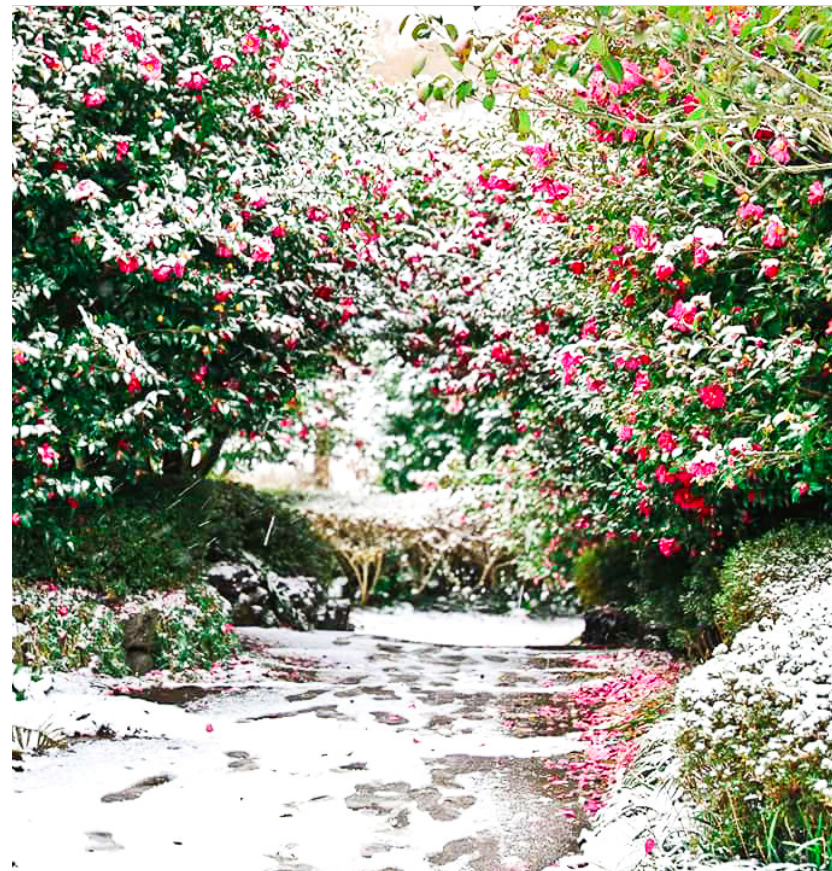
겨울이면 무릎 높이까지 하얀 눈이 쌓여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붕긋붕긋한 구릉의 크고 부드러운 곡선이 인상적이고, 6만 2,000여 평(약 204,959㎡)의 목장을 풍성하게 채운 눈도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산책 포인트는 귀틀집이 자리한 구릉 정상부와 '바람의 집'이라 부르는 목장의 정상 지대다. 구릉에서는 귀틀집 안에 있는 비료 포대를 썰매 삼아 몸을 맡기고 눈길을 달리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고, 목장 정상부에서는 목장을 비롯한 황계 일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두툼한 눈 이불을 뒤집어쓴 날엔 그 풍치가 더하다. 축사에 있는 양들에게 건초를 먹이는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건초를 먹이며 양들과 눈을 맞출 수 있다. 목장을 한 바퀴 걸어도 데 걸리는 시간은 30~40분으로, 한번 눈이 내리면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적설량이 많아 아이젠과 스패츠(발목 토시) 등 눈길 트레킹 장비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뜨끈한 황태국 맛보세요



오가는 길에 허기가 진다면 황계(대관령면)의 별미인 황태도 맛볼 일이다. 대관령 황태는 통통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씹는 맛이 일품이다. 황태국으로 소문난 집은 황태덕장(033-335-5942). 뜨끈하고 진한 국물에 추위가 다 가신다.



겨울에도 우르르 동백꽃 피는
제주 카멜리아힐

언젠가 제주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이유는 단순했다. 겨울에도 초록이 넘실거리고 꽃이 피어서였다. 꽃이 피는 곳, 그중 한 곳이 카멜리아힐이다. 중산간에 있는 카멜리아힐은 세계 각국의 동백 500여 종이 피고 지고 또 피는 자리다. 폭설 속에서도 보란 듯이 꽃이 피고, 한기 속에서도 꽃그늘이 붉다. 그래서 이름도 동백의 언덕이다. 그렇다고 흔히 상상하는 언덕처럼 오르막이 많은 곳은 아니다. 17만㎡가 넘는 부지 대부분이 평지이거나 얇은 오르막. 카멜리아힐은 그 숲 사이로 난 산책로를 한 바퀴 걸으며 동백꽃을 감상하는 곳이다. 마침 그 길엔 화산토인 송이까지 깔려 있어 한층 제우스럽다. 한 바퀴 걸어도 데 걸리는 시간은 40~50분. 하지만 대부분이 2~3 시간을 머문다. 30년이 넘은 동백 정원이라 키 큰 나무 사이를 오가며 산책하는 걸음이 더디고,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힐링하는 자리여서다.

한라산 눈꽃도 보고 오세요



현재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주요 탐방로는 5개. 이 중 겨울철엔 산행 시간이 짧은 영실코스(영실기암과 구상나무 군락지, 선작지왓)·영실기암의 눈꽃은 장대하고, ‘논의 숲’ 같은 구상나무 군락지의 설경은 신비롭다. 또 백록담의 시커먼 부악이 시선을 압도하는 선작지왓은 ‘신들의 겨울 정원’인 양 매력적이다.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힐링 영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과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긴장감은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변화를 앞둔 시점, 잠깐의 휴식과 용기를 선사하는 영화를 만나 보자.

글 이원복
자료 영화 <리틀 포레스트>, <카모메 식당>,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재출발을 위한 잠깐의 휴식 리틀 포레스트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감독 임순례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힐링 #휴식 #시골감성 #자급자족 #제철음식

<리틀 포레스트>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혜원(김태리 분)의 일상 이야기를 그린다. 처음에는 잠시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그곳 고향 친구인 재하(류준열 분)와 은숙(진기주 분)을 만나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여러 계절을 보낸다.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요리를 해 먹거나, 재하의 반려견 '오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 새로운 봄을 맞이 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영화는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팬지꽃을 올린 파스타와 아카시아꽃 튀김, 오이 콩국수 등 개성 넘치는 음식의 조리과정도 보는 재미도 있다. <리틀 포레스트>가 전하는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한번쯤 돌아보게 할 계기를 선사한다.

낯선 곳에서 만난 위로 카모메 식당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코미디, 드라마
감독 오기가미 나오키



© (주)엔케이컨텐츠

#핀란드 #헬싱키 #위로 #어울림

<카모메 식당>은 핀란드에서 일식당 '카모메'를 운영하는 사치에(코바야시 사토미 분)의 이야기다. 가게를 오픈한 지 한 달째, 부푼 기대와 달리 가게를 찾아오는 발길이 뜸하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사치에. 그러던 중 우연히 미도리(카타기리 하이리 분)와 마사코(모타이 마사코 분)를 만나게 되고, 카모메의 새로운 메뉴 시나몬 롤이 탄생하면서 식당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오며 카모메 식당은 다양한 사람들의 작고 소박한 사연으로 가득 채워진다.

마치 헬싱키의 카페에 앉아 누군가의 진실한 사연을 듣는 것 같은 영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울림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다시 만나 함께한 사계절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감독 세드릭 클라피쉬



© 티캐스트

#부르고뉴 #와인 #사계절 #삼남매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10년 만에 재회한 삼남매가 함께 와인을 만드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간 운영해 온 와이너리를 '공동 소유'로 남매에게 남긴다. 삼남매는 가문 대대로 이어 온 와이너리를 팔지 않기로 하지만, 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막대한 상속세. 고심 끝에 함께 와인을 만들어 팔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1년 동안 매주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영상을 찍는 방법으로 포도밭의 사계절을 담은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하며 프랑스의 부르고뉴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와인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인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점은 영화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포도밭의 사계를 담은 영화를 보고 나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오를지도 모른다.

추울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겨울의 별미

대구



1월, 차가운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참 많다. 찬물을 먹고 죄다 맛이 들었다. 대구의 시즌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계적으로 대구만큼 인기 있는 생선은 드물다. 잡기 쉽고 커다란 살집을 품은 대구는 인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상당 부분 책임졌다. 그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다. 커다란 입(大口)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은 생선이다.

글. 사진 이우석 농고먹기연구소장

대구, 인류 역사를 바꾸다

대구(cod)는 서양에서 일찌감치 진가를 발휘했다. 살점이 많고 비린내도 적은 덕에 유럽의 대표 어종으로 군림했다. 과거 바이킹은 말린 대구를 비상식량 삼아 배에 가득 싣고 멀리 노략질을 하러 다녔다. 스페인 바스크(Basque)인들은 대구 떼를 따라가다 신대륙(북미 뉴펀들랜드 지방)을 발견했다. 포르투갈에는 '바칼라우(bacalhau)'라는 이름의 대구 요리가 수천 가지가 있을 정도다. 바칼라우는 '염장 대구' 자체를 의미한다. 염장했으니 간고등어처럼 단백질이 변형돼 감칠맛을 낸다.

서방 세계에서 자천하는 '대항해시대'의 원동력은 대구였다. 말린 대구가 없으면 '발견'도 '침략'도 어려웠다. 눈치 빠른 한자(Hansa) 동맹의 상인들은 노르웨이 베르겐에 당시 북해의 최고 히트상품 대구를 서남 유럽으로 유통하는 '창고형 물류센터' 브뤼겐(Bryggen)을 지어 전 유럽에 유통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며 대구는 갑자기 귀해졌다. 유럽 곳곳에서 어장 분쟁이 일어났다. 20세기 중반 아이슬란드와 영국이 벌인 대구 전쟁(cod war)은 당시 냉전(cold war)만큼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대구가 귀해진 탓에 한때 생대구는 최곱값을 받았다. 연근해산 대구탕 한 그릇에 1만 원을 상회했다. 이후 연근해 치어 방류사업을 꾸준히 펼친 덕에 지금은 개체 수를 많이 회복했다. 값은 내리지 않았다.

한류(寒流) 스타 대구

대구는 대표적 한류성 어종으로 겨울에 잡힌다. 대구는 입이 커서 대구(大口)다. 입이 크고 몸짓이 빨라 아무거나 쓱쓱 삼켜 버린다. 당연히 살도 투실하고 크다. 대구는 담백해 생선을 그리 즐기지 않는 이들도 꽤 좋아한다. 포를 뜨면 다양한 음식으로 재가공할 수 있다.

한식에선 국을 끓이거나 찌 먹는다. 특히 대가리를 내장, 콩나물 등과 함께 찌는 대구뽕찜(뽕대기찜)은 씹는 맛도 좋고 살점도 많이 붙었다. 뽕찜과 뽕탕은 살토막보다 고급이다.

역시 대구탕이 가장 흔하다. 맑은 탕과 매운탕 등 기호에 따라 나뉘는 편이다.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 까닭이다. 반쯤 말린 대구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반건 대구탕은 더욱 구수하고 감칠맛이 더하지만 향이 진해 호불호가 갈린다.

대구찜(뽕찜)은 아귀찜처럼 콩나물과 미나리, 매운 양념을 더해 중불에 볶아 낸 음식인데 담백하고 칼칼한 맛으로 즐긴다. 자작한 국물을 머금은 대구 대가리는 안줏감으로 썩 훌륭하다. 경남에선 배초향(방아)을 넣기도 한다.

유럽에서도 역시 겨울에 주로 먹는데, 생선에 맛이 드는 '제철'이야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서로 비슷한 덕이다. 찬물에 맛이 들 대로 든 싱싱한 대구. 따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살점은 어떤 한파도 이겨 낼 힘과 에너지를 준다.

대구 맛집을 찾아서

자원대구탕

삼각지를 이른바 '대구탕 골목'으로 이끈 대표 노포(老鋪)다. 커다란 대구 도막과 이리 등을 인심 좋게 넣고 미나리 등



채소를 한가득 올려 먹는 전골집이다. 칼칼한 양념 육수에 팔팔 끓여 낸 대구 살을 한 손가락 떠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하게 목을 타고 넘는다. 슈크림처럼 부드러운 대구 살을 바삭하게 튀겨 낸 대구 튀김도 빼놓을 수 없고, 기본으로 내주는 아가미 젓갈도 연신 젓가락을 잡아끄는 별미다.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가길 6

해운대 속 시원한 대구탕

과거 해운대 여행 갔던 이들로부터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탄 집. 대구탕 국물 맛이 시원이 아니라 '씨원'이다. 해운대



풍경에 취해 간밤 술자리를 즐겼다면 이 국물이 약. 해장의 제왕이라는 복국과 견주어도 가히 겨울 만하다. 맑은 탕이 상에 오르면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국물부터 마신다. 목을 타고 위까지 흘러드는 뜨거운 국물이 당장 지친 몸을 되살린다.

📍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28

광화문 몽로

정통 이탈리아식 바칼라를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레스토랑. 바칼라란 염장 대구살(baccala)을 으깨 감자, 병아리콩과 함께 섞고 익힌 다음 치즈를 뿌려 낸 음식이다. 형태마저 사라진 대구살(정확히는 대구포의 살)을 포크로 잘라 내면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스프레드가 된다. 갓 구워 내 바삭한 치아바타 빵에 발라 먹는다. 와인과의 궁합이 잘 맞는다.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0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①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 2. 자료 수집
 - 3. 자료 분석과 기술
 -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유숙경*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겸임교수
(hm10716@naver.com)

• 접수일(2021. 05. 21.), 심사일(2021. 08. 18.),
수정일(2021. 08. 23.) 게재확정일(2021. 08. 26.)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 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 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주제어 : 마약밀매구조, 마약류 공급차단정책, 마약 밀매자, 사례연구, 교정정책

I. 서론

한국은 80년대 초부터 9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될 정도로 마약남용(drug abuse)과 마약밀매자의 통제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최근 데이트강간 마약류와 같은 점차 강력범죄(살인, 난동, 강·절도)와 연관되는 심각한 수준의 마약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대검찰청, 2020:241). 마약류 사범의 문제는 원료의 공급, 제조, 밀수, 밀거래, 투약 등과 같은 순환구조이다. 버닝썬과 같은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마약범죄는 영화가 아닌 환각 세계 속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모험을 경험하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마약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될 수 있다(안상원/권일용, 2016:40; Stryker, 1989, 719-740). 마약류 관련 사용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보다 숨은 범죄자가 더 많은 암수범죄(hidden crime rate)로 마약연구자들은 통상적으로 암수를 80~95%로 보고한다. 그렇지만 마약 사용자들은 극단적으로 98%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2019년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은 16,044명으로 실제 마약류 사범은 최소 10만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박성수/백민석, 2019:160). 이와 같은 마약사범 증가는 정보통신기술발달로 국경을 초월하여 국내외의 마약류 공급자들을 중독자와 마약을 접하지 않았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국제화된 현상으로 분석된다(대검찰청, 2020:155).

우리나라의 2019년 마약류 관련 공급사범(밀조, 밀수, 밀매)은 전년 비에 2% 증가 한 4,225(26.3%)명으로 이 중 밀매자는 3,437명이다(대검찰청, 2020:140).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마약류의 몰수·추징·보전과 같은 범죄는 2015년 142건 9억8,079만원에서 2019년 218건 89억0,076만원으로 76건 79억5,887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0:134). 밀매의 증가는 마약류 유통이 다크 웹(dark web)마약 판매 사이트(서울중앙지검, 2018), 모바일 상품권과 가상계좌(수원지검, 2018), 인터넷 필로폰 판매 광고와 SNS ‘텔레그램’(수원지검, 2019), SNS와 ‘위챗’ 광고(수원지검, 2019)등과 같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다양한 경로로 비밀구매가 이뤄진다(대검찰청, 2020:191).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세계’의 국내 총책인 ‘바티칸 킹덤’ 박왕열 사건은 마약 문제의 국제화(전 세계 패밀리)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비밀거래(텔레그램 마약 왕)는 마약 밀매



위험성과 국제화된 유통구조를 알 수 있다(노컷뉴스, 2021, 01. 31). 국제화된 유통구조는 점차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2018: 16-18). 마약 밀매 형태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주문하고 대포통장으로 결제하면 일부는 중간 운반자의 신체(항문, 자궁 등)로 운반하고, 일부는 국제우편이나 택배, ‘던지기’ 수법으로 감춰 둔 곳에서 찾는 과정으로 이뤄진다(대검찰청, 2020:191). 마약은 본질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즉 마약 공급자의 증가는 수요자를 증가시키는 구조로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독자를 양산한다. 이는 마약 재발요인 중 손쉬운 밀매유통구조도 문제이지만, 마약 밀매자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도 있다(유상희, 2019:100). 마약은 상용(常用)으로 인한 중독을 일반적으로 관성중독(慣性中毒)이라 하는데, 마약 밀매자의 근접성은 갈망을 촉진하는 재발조건이 된다(남선모, 2014:36). 따라서 마약 유통 순환구조 속에서 밀매 문제해결은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밀매의 순환고리에서 탈출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급차단과 수요차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마약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거시적 차원은 공급차단이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회복모델의 패러다임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적 접근이다(Shevchuk et al., 2020: 330).

한국은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도입하여 마약류의 제조, 유통, 처방, 투약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강력한 엄벌주의 정책기조인 검거 위주의 공급감소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의미한다.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공급차단 정책과 수요감소 정책인 수감을 통한 사회적 분류는 마약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마약통제 정책은 회복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더불어 공급차단 정책과 수요감소 정책을 통해 마약 밀매의 순

1)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관계된 자금.

환구조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조성남 외, 2021:44; Valen et al., 2019: 191-199). Creswell(2013)의 사례연구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분석에 유용한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단순 마약 사용에서 마약 밀매자로 전환한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마약 밀매자의 회복을 돕는 공급 차단정책과 마약중독자의 재활과 예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요감소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비 마약 사용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정정책 차원에서 회복모델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마약 밀매자의 밀매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마약범죄의 확산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동시에 미시적 차원에서 마약의 사용에서 중독에 이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와 정책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Ramirez, 2021:179). 로버트 머튼(Merton, R)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institutional anome theory, IAT)²⁾은 개인이 특정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취와 꿈을 이루는 합법적인 문화적 수단이 결여되었을 때 범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는 성향을 갖는다(Messner & Rosenfeld, 2001: 84). 마약이 만연한 중남미 국가의 사회구조시스템의 모순은 빈익빈 부익부의 상대적 빈곤과 합법적으로는 계층의 이동이 제한된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성장한다는 것은 평등이 보장하지 않기에 마약 밀매 유혹에 빠지기 쉽다(Ezeh et al., 2017:547-558; Rose-Ackerman, 2000:95). 마약 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역시 콜롬비아의 빈민가에서 성장했다. 이후 빈민가를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마약 밀매자, 살인 청부업자로 교육하여 세력을 확장 시켰다(Pobutsky, 2020:63-94). 1993년 그는 사망했지만 지금도 콜롬비아는 그가 남긴 악의 유산으로 사회가 멍들고 있다(Rincón, 2020:80). 마약 밀

매는 필연적으로 부패한 관리들과 연합하여 사회에서 진실과 공정을 사라지게 만든다. Campos(2020:6)에 의하면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 멕시코 호아킨 구스만(Joaquín Archivaldo Guzmán Loera), 미얀마 쿤사 역시 부패한 관리와 연계하였다. 부패한 관리들은 검은 돈을 받고 검은 조직의 관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Riding, 2011:164).

2000년 이후 마약조직과 테러조직의 상호연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반 군세력의 연대로 시작하여,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 마약조직과 헤지볼라(Hizballah)와 하마스(Hamas)의 연대하면서 점차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했다(Walker, 2006:21). 마약밀매는 특정사회의 부패한 관료, 테러 조직과 연대를 통해 공고한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최대 마약 소비시장은 미국과 유럽이지만 최대 생산지는 멕시코, 중남미, 그리고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황금의 초생달 지대(golden crescent)이다. 마약 소비국가들은 마약 생산국으로 부터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 수입 유혹 때문에 재배를 계속하고 있다(조은석/김광준, 2001:34).

마약 범죄는 개인의 호기심과 반복성, 무절제, 환각성, 음란성, 심리적 불안감, 폭력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중독에 이르게 되면 중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이 잃게 된다(Wilson, 1990:525-527). 마약의 비정상적인 하위문화에서 마약 밀매를 하게된다(이봉한, 2019:142; da Agr, 2017:11). 마약 투약과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해 친분 형성을 위한 집단의 인맥을 교묘한 방법으로 악순환의 굴레로 끌어드려 판매 루트를 확장 시킨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8).

특히 교정시설에서 상선을 만나 마약 공급 루트를 알고 출소 후에는 판매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유숙경, 2020:87).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약을 끊는데 가장 위험요인은 가까운 지인이다(유상희, 2019:101; de Drogas, 2013). 밀매자들은 협박과 강렬한 쾌락의 유혹과 충동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략으로 재발이라는 거미 덩을 놓는다(장정연, 2013:210; 유숙경, 2020:88). 마약 밀매자의 거미 덩

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국제망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마약 밀매연구는 마약 범죄의 현황과 근절 방안(Carpio-Domínguez, 2021:237-274 ; Hughes et al., 2020; Luna Galván et al., 2021: 197-212; Ovcharenko et al., 2020: 1296; Panneerselvam, 2021: 1-6; Tretyakova, 2020:48-53)과 북한 마약 밀매(박강, 2006:459-490; 백남설, 2021:92-111)와 마약 생산국을 중심으로 한 마약 밀매 방지 정책(조성권, 2009: 41-68; 조성권, 2010:317-340), 마약범죄(신상철, 2020:77-98)등이었다. 마약 폐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마약유통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분석하여 이를 끊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들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마약 밀매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긴 시간 라포형성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또 다른 연구참여자를 1명을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총 5명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마약 밀매 관련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다고 구술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면담 전 연구목적과 진행방식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대1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참여자 1인당 3~4회, 회당 90분이 소요되었다.

<표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마약관련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마약 투약			마약 밀매			형사 처분
					최초 시기	종류	기간	최초 시기	종류	기간	
1	남	50대	고졸	자영업	19세	필로폰	6년	30세	필로폰	9년	0
2	남	40대	고졸	자영업	21세	필로폰	8년	35세	필로폰	10년	0
3	남	40대	대졸	회사원	20세	필로폰	5년	29세	필로폰	7년	0
4	남	50대	고졸	자영업	25세	필로폰	6년	34세	필로폰	8년	0
5	남	50대	고졸	자영업	29세	필로폰	7년	38세	필로폰	11년	0

※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구체적 연령은 나이대로 표기함.

반 구조화 형식으로 마약 밀매 이외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으며 보충 면담을 E-mail과 전화로 보완하였다. 탐구주제는 <표2>와 같다.

<표2> 탐구주제(research questions)

번호	인터뷰 내용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2	마약을 처음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가요?
3	마약을 투약하면서 끊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4	마약 밀매하기 전 직업은 무엇인가요?
5	직업생활을 하면서 느낀 성취감이나 보람은 무엇인가요?
6	마약사용자에서 마약밀매자로 전환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7	마약밀매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과 문제는 무엇인가요?
8	상선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했나요?
9	고객인 마약사용자들은 어떻게 확보해 갔나요?
10	지역사회나 주변지인들은 마약밀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11	지역사회나 주변지인에게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12	마약밀매를 그만두게 한 동기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마약은 어떤 의미인가요?

3. 자료 분석과 기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rewell(2013)의 사례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텍스트(text)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다음의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 중 마약밀매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결집하기 위하여 5회 정도 정독하면서 마약밀매와 관련된 내용을 분절하였다. 두 번째, 분절한 내용 중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 개념으로 결집하였다. 세 번째, 개념들을 공통성 차원에서 결집하고 모든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범주들을 분석영역인 진입 동기, 마약 공급조직, 소비시장 확장전략, 사회관계라는 4가지 분석영역으로 재배열하였다.

2) 제도적 아노미 이론(institutional anome theory, IAT)은 경제제도와 비경제적 사회제도 간에 발생하는 제도적 권력 불균형, 경제제도에 의한 비경제적 사회제도에 대한 침투현상과 비경제적 사회 제도들의 경제제도의 가치기준에 대한 순응이 사회 문화적, 구조적으로 범치원인론적(criminogenic) 특성을 형성.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압력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전적 목표의 견지에서 이해되고,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동의 경계 내에서 만족하지 않다면 필요와 욕구를 나타냄. 이는 제도적 특성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범죄 행위인 화이트칼라 범죄와 강도, 마약밀매, 기타와 같은 길거리 범죄를 포함.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자료에서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익명이나 부호화하거나 민감한 사항은 표기하지 않았다. 둘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 중 자발적 동의를 반복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과거의 경험을 재 경험하여 다소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기에 마약 밀매는 물론 범죄 경험과 관련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구술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자에게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위의 내용을 매 회기 인터뷰 전에 자발성 강조를 반복적 하였다.

2) 연구의 타당성 제고

연구자는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Liebow(1993:68)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2년 이상 라포형성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성이나 왜곡 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Lincoln과 Guba(1985:26)가 제시한 동료지지 집단으로 접근하였다. 동료 지지집단은 총 4명으로 마약관련 박사급연구원 1인, 마약중독 회복자 1인, 마약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치료자 1인, 사례 연구방법론 1인으로 구성하였다. 동료 지지집단은 자료의 검증과 적절성 등을 조언하고, 연구 방향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셋째, Glesne과 Peshkin(1992: 320-350)이 제시한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이 끝난 후 다시 심층 면담을 하였고, 연구에 관계된 사항은 물론 연구자가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는지 확인 등의 의견을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나타난 구성요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1) 진입 동기

연구참여자들의 마약 밀매자로서의 진입 동기는 마이다스(midas)의 비즈니스,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눌 수 있다.

(1) 마이다스(midas)의 비즈니스

연구참여자들이 마약밀매자라는 위험하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형벌이 예기되는 영역에 진입한 것은 마약의 고수익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시장은 원료 제조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500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수익구조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마약 단순사용자에서 마약밀매자로 이동하는데 가장 큰 진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마약의 위험부담은 매우 높지만 그에 비해 이익은 더 높다고 말하며, 위험이 백두산 높이라면 이익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라고 구술하였다.

“마약 한번 잘못하면 작살나지요. 단순 투약자는 처음에 한두 번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딜러가 되면 말이 달라져요. 중국에서는 형을 사형까지 때리니까요. 한국도 중국 같이 무섭지는 않지만 마약 총책 같은 경우 과거에 무기징역까지도 살았어요. 사기보다 징역이 더 세요. 그래도 더 큰 유혹이 뭐냐면... 위험보다 이익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웃음). 잡혀가서 징역 살 위험이 백두산 높이, 그것도 높지요. 그런데(웃음), 이익은 에베레스트산 높이에요.” [연구참여자1]

위험부담에 비해 높은 고수익은 연구참여자4에게는 구체적 액수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마약 밀매하기 전 나이트클럽 웨이터 일을 했다. 그는 웨이터 중에서 잘 나가는 에이스 급이라고 표현했다. 웨이터 시절에는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마약 밀매를 시작하고 루트가 생기자 하룻밤에 중간구매를 하여 1억을 벌었다고 구술했다.

“이게... 한번 맞들이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에요. 남들 1년 동안 뺨 빠지게 벌수 있는 돈... 그렇지 않아요? 월급쟁이들 꿈이 연봉 1억이라고 하는데 연봉 1억 받아도 세금 떼고 뭐 떼고(한숨 씬)... 한 달에 얼마나 남겠어요? 한 7백 8백 될러나? 소매하는 애들은 별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만 도매점도... 도매... 도매도 큰 도매는 아니고(생각)... 작은 나까마였는데... 나까마 아시지요? 물건을 넘기면 현금 박치기이니까. 어째든 1억이 남기도 해요. 세금 한 푼 없지요.” [연구참여자4]

이와 같은 고 수익구조이기에 연구참여자5는 마약밀매를 도깨비방망이로 묘사하였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신비의 장사였다.



“옛날에 노래가 있었지요(노래 시작).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응응응... 아~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돈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뺨 있으면 무엇이건 될 수 있어(노래 마침)... 돈 있으며... 돈 있으면... 뺨 있으면... 뺨 있으면... 뚫든 다 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다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연구참여자5]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마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이다스(midas)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경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3> 연구참여자 분석영역, 범주, 개념결집

분석영역	범주	개념결집
진입 동기	마이다스(midas)의 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부담에 비해 높은 고수익. [연구참여자1] 일년치 연봉을 하룻밤에 벌 수 있는 구조. [연구참여자4]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약장사. [연구참여자5]
진입 동기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이 최고인 시대에 확실한 신분상승의 엘리베이터. [연구참여자2] 근면 성실은 효용이 다함. [연구참여자5]
	가난한 자의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도 자본도 없기에 마약만 유일한 수단. [연구참여자1]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에서 선택한 결단. [연구참여자3]
마약공급 조직	항구적 상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선과 관계가 단절될 때를 대비한 대안상선관계유지. [연구참여자5] 불이익이 있어도 상선에 대해서는 침묵. [연구참여자3] 발설이 두려워 상선에 대해서는 알리고 하지 않음. [연구참여자2]
	불신과 배신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살기위해 조직 동료의 정보를 알려줌. [연구참여자1] 의리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 [연구참여자4] 밀고가 두려워 최대한 은폐. [연구참여자3] 거래선을 탐지한 후 경찰에 넘김. [연구참여자2] 언제나 경계의 대상. [연구참여자5]
	믿음의 근원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확보를 위해 재테크는 멀리 감. [연구참여자4] 현금이 신. [연구참여자1] 상상할 수도 없는 신용거래. [연구참여자5] 현금을 지키는 세파트로 일관. [연구참여자2] 토끼가 여러 개의 굴을 파듯 현금 은닉처를 만들. [연구참여자3] 체포될 때를 대비해 고객의 현금소지. [연구참여자4]
소비시장 확장전략	주변지인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혹친구들을 마약으로 유인. [연구참여자1] 호기심 많은 친구는 최우선 고객. [연구참여자4] 아는 사람부터 뽑아 먹기. [연구참여자3] 지인목록은 예비고객 목록. [연구참여자5]
	다단계식 밀매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의 중독자를 만들고 그를 중간소매상으로 활용. [연구참여자2] 중독자는 자기의 마약 값을 벌기위해 밀매자로 변신. [연구참여자3] 초기에는 많은 수익을 보장하고 점차 줄임. [연구참여자5]
	중독의 무한 루프에 가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을 끊은 사람을 유혹하여 마약밀매. [연구참여자1] 마약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탐색. [연구참여자4] 열 번 찌기로 집요한 유혹. [연구참여자3] 중독 당시의 극렬한 쾌락을 상기시킴. [연구참여자2] 약점을 잡아 마약을 사용케 함. [연구참여자5]
사회관계	평범의 가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인에게는 친절한 이웃으로 알려짐. [연구참여자1]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가장. [연구참여자3] 출근할 곳이 없어도 정시에 출·퇴근. [연구참여자5]
	거짓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 [연구참여자2]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자가 됨. [연구참여자1] 이웃봉사는 가장, 체포 될 때의 대비. [연구참여자4]

* 연구참여자들 마약밀매 경험의 분석영역인 진입동기, 마약공급조직, 소비시장 확장전략, 사회관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 JANUARY Vol. 548

교정기관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법무부장관 (12. 2.) 인천구치소, (12. 8.) 서울동부구치소, (12. 13.) 홍성교도소, (1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본부장 (12. 8./12. 11.) 서울동부구치소, (12. 13.) 홍성교도소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실태 점검

「희망커피」 1호점 개업

일시-장소

12. 7.(화) 16:00, 서울구치소 민원실 내 희망커피
 ※ 희망 커피: 김천소년교도소 바리스타 훈련 과정을 이수한 출소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카페

참 석 자

- (법무부)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정책보좌관, 감찰관, 대변인
- (외부인사) 제로캠프 이사장(최불암),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축사, 바리스타 체험 및 격려 등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의 날」 행사



추진 배경

교정위원 자긍심 고취 및 교화활동 역량 제고

일시-장소

12. 2.(목) 18:30,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참 석 자

교정본부장, 광주지방교정청장, 교정위원 등 90여 명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수, 교정본부장 격려사, 교정위원 활동 현황 보고, 교화미담사례 발표 등

제33회 아시아교정포럼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일시-방법 12. 29.(수) 16:00, Zoom 화상회의

주 최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 인문교정연구소

주요 내용 축사(유병철 교정본부장)/교정에 대한 회고와 전망(송성신 전 교정본부장)/교정현장과 교정학의 만남을 위한 북 콘서트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12월 21일 전사·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비밀 관리에 대한 개인별 임무 상태를 숙지하고, 반출 장소 및 파기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나고은

희망커피 1호점 개업

서울구치소는 12월 7일 소년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희망커피 1호점'을 개업했다. 희망커피는 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의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희망커피 1호점은 김천소년 교도소 출소자를 채용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음료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2월 17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신경우 청장은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선별진료소, 신입자 격리 수용동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신경우 청장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중한 시기인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제주지방법원과 원격 영상 재판 실시

수원구치소는 12월 8일 제주지방법원과 원격 영상 재판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김명철 소장은 "첫

영상 재판 실시를 계기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수용자가 원격 영상 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임경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접종은 지난 7월 2차 접종을 실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내 의료 인력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해 인천구치소를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중앙통제실, 의료 수용동, 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천구치소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역 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7일, 9일, 10일에 걸쳐 교정협의회로부터 굴 4,200개, 맥반석 계란 3,800개, 바나나 4,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교정협의회에서 수용자들이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현장 점검을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전태수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2월 15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신경우 청장은 격리 수용동 및 임시 격리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한

수용자 물품 기증

여주교도소는 12월 14일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화장지 2,300개를 기증받았다. 최진규 소장은 "수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권영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장님과 이종길 보호위원장님, 기영길 보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접종은 2차 접종을 실시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체 의료 인력을 활용해 직원 320여 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남준락 소장은 "교정 시설은 3밀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백신 3차 접종을 통해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수용자 물품 기증

춘천교도소는 12월 16일 분당주사랑교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떡 1,000개를 기증받았다. 김일환 소장은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온정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당주사랑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원주교도소는 12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체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구의 직영 작업장 준공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12월 2일 구의 직영 작업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경화 소장은 작업장 준공을 위해 준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영 작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영월진로체험센터 감사장 전달

영월교도소는 12월 13일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진로교육 운영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영월진로체험센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영월교도소는 지난 10월 영월 봉래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유익한 진로 탐색을 위해 교도관 직업에 대한 외부 강의를 실시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12월 20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의무서기관(의료과장)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개청 후 공석이었던 의료과장 자리를 사회에서 의료 경험

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 생활 및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2월 16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승진자 교위 장익성, 교위 정원기는 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교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으며,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택지소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개청 11주년 기념 자축

소망교도소는 12월 1일 개청 11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개청 기념행사는 취소했지만, 직원 모두가 지나온 11년을 되돌아보며 자축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소망교도소의 설립 목적인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은 12월 23일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 PC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 운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대구교도소는 1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 오광운 소장은 "헌혈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라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2월 6일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구지서 청장은 코로나19 추가 접종 계획 및 의료과 숙직 근무체계 등을 보고받았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2월 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장종선 소장은 "공직자가 앞서가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창원교도소는 1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전 직원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12월 21일부터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교정기관 특별방역강화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PCR 검사를 마친 박수연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용자 의료 처우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에 고군분투했던 의료과 직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수식 실시

포항교도소는 12월 21일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수식을 실시했다. 우수인권공무원 표창은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인 배민재 교사는 “교정시설은 인권을 존중하며 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법무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살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12월 13일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전임시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직무 교육을 수료하고 전입했으며, 2주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가진 후 급식, 물품, 시설 관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2월 17일 대구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구지서 청장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교화 자원을 위한 사과 900개를 기증받았다. 이남구 소장은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2월 15일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구지서 청장은 신입 격리실을 둘러본 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기관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했다. 배경석 소장은 “이번 백신 3차 접종 후에도 안전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직원 체육시설 누리관 개관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12월 8일 직원 체육시설인 누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누리관은 헬스장, 탁구장, 음악실로 구성돼 있다. 박동수 소장은 “신축한 체육시설 누리관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상호 유대감 증진, 일체감, 소속감 형식으로 즐겁고 웃음 넘

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2월 21일 (주)하나레이저테크 임창빈 대표와 김해 시온 중앙교회 유희숙 전도사로부터 떡과 사과를 기증받았다. 임창빈 대표와 유희숙 전도사는 “수용자들이 기증받은 음식들로 마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실시

울산구치소는 12월 6일 서생중학교와 21일 천상중학교를 방문해 진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 멘토링은 기존 수업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제 교도관 업무를 몸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정공무원 계급 및 업무 정보, 교정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이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수용자 사·수필 공모전 심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수용자 사·수필 공모전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을 초대해 수용자들의 작품을 심사했으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수용자에게 소정의 영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보균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사·수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실시

통영구치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했다. 차광식 소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구치소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실천

밀양구치소는 12월 15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에는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5명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오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성금을 전달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코로나19 대응팀 회의 실시

상주교도소는 12월 9일 코로나19 대응팀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팀은 격리자 현황, PCR 검사 일정, 백신 접종 일정 및 교정기관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안영삼 소장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용자 처우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정병헌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홍성교도소 등 5개 소속 기관에 대한 방역 관리 실태 현장의 지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 수

칙 준수를 당부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롤링페이퍼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직원 간의 추억을 쌓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비대면 ‘팀별·부서별 롤링페이퍼’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정병헌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2월 8일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기관 운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정병헌 청장은 신입자 격리 수용동 등 방역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자체 소화전 전개 경진대회 개최

천안교도소는 12월 2일 자체 소화전 전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 상황 발생을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옥외 소화전 전개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및 전 직원이 소화전 전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수용자 물품 기증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21일 사단법인 행복투게더 필그림교회로부터 떡 900개를 기증받았다. 서수원 소장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떡을 기증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더 드론 비행교육원 업무 협약 체결

공주교도소는 민관 통합 방위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12월 15일 ‘더 드론 비행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드론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협력 체계를 통해 완벽한 지역 방위 태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민원봉사실 내 미소갤러리 새 단장

충주구치소는 12월 10일 민원봉사실 내 미소갤러리를 새 단장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소갤러리 전시대를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안정과 휴식뿐만 아니라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원

‘감사와 꿈 노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12월 1일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감사와 꿈 노트’ 공모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수용 생활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2월 16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진 직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 진행됐다. 승진 직원들은 높아진 계급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행정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교정기관 NEWS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칭찬 건의함 설치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2월 2일 직장 내 칭찬 및 감사 문화 확산을 위해 칭찬 건의함을 설치했다. 장승구 소장은 “이번에 설치한 칭찬 건의함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칭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2월 16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대철 소장은 “직원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사에 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줘 감사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소속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2월 9일 소속기관 9곳의 시설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소속기관에서 시설업무 담당자가 대표로 1명씩 참여했으며,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보안청사 직원휴게실 새 단장

광주교도소는 12월 17일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보안청사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을 완공했다. 보안청사 직원휴게실은 카페를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직원들은 편안한 쉼터에서 쾌적한 휴식시간을 보내게 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저소득 취약계층에 연탄 기부

전주교도소는 12월 14일 직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마련해 인근 지역(작지마을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했다.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직접 각 가정에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 연탄은행에 기부금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학생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2월 24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디딤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9회째 이어진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학생 장학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12월 23일 관내 학생들에게 사랑나눔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성주 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과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군산교도소는 12월 1일 인조잔디를 설치해 새롭게 단장한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 테니스장은 맨땅이었던 관계로 비가 온 뒤 테니스장 이용이 힘들었지만, 인조잔디 설치 이후 직원들은 언제나 테니스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교정의 날 기념 걷기대회 시상식 개최

제주교도소는 12월 14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비대면 체육행사로 진행된 ‘올레길 걷기대회’ 수상

자에게 부상을 수여했다. 올레길 30.7km를 걸은 교위 김태영 등 3명에게 캠핑용품 등 부상을 수여했으며, 참가한 40명의 직원에게도 상품을 지급해 교정의 날 기념행사의 의미를 나눴다.



장흥교도소 / 교도 심종철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2월 7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일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신용해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2월 22일 해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신입 수용자 임시 격리시설과 격리수용동 등 방역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장기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특히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12월 8일 안전반출 및 파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은 전시 또는 전시준비하는 비상사태 시 기관 내 보유 중인 비밀문서 및 암호자료 등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훈련이다. 정읍교도소는 이번 훈련으로 유사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Re:mind

모범 공무원



인천구치소 교위 김영애

김영애 교위는 1992년 임용 후 약 29년간 재직하고 있다. 현재 여성처우팀원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기본으로 수용동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자 고충 사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상담을 실시해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입소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휴대 물품 및 신체검사 실시 중 수용자가 무언가 감추는 모습을 발견해 즉시 제지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내는 등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창원교도소 교위 양진국

양진국 교위는 지난해 10월 27일 수용자 면담 중 “○○수용자가 1실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결심을 이야기했으며, 고의로 다친 뒤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나간 후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할 것”이라는 제보를 들었는데, 이 도주 계획이 매우 구체적임을 인지하고 즉시 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양진국 교위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보고는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근무자들의 철저한 계호로 이어져 도주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봉철구

봉철구 교감은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수용자와 사전 상담을 실시해 적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외부 진료 후 회복한 수용자 및 그 가족에게 수회에 걸쳐 감사 편지를 받는 등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의한 직원 및 수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에 기여하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앞장섰다.



순천교도소 교위 허명욱

허명욱 교위는 2007년 임용 후 약 15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과 업무를 사명감 있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교정교화에 있어 규정에 입각해 엄정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실시하고 있다. 기피 개소 업무인 미지정 수용동에 자원해서 근무하며 수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수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자
퀴즈

사진이 실린 코너 이름 맞추기

2022년 새롭게 달라진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과 함께하는 코너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스타일 변신을 시도하는 코너부터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코너,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코너 등을 마련해 더욱 알찬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월간 <교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사진이 실린 새로운 코너의 이름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

□ □ □ □ □

힌트: 선배와 후배가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코너



정답

□ □ □ □ □

힌트: 교정공무원이 동호회나 자신의 취미를 이야기하는 코너



정답

□ □ □ □ □

힌트: 교정공무원의 사복 패션을 트렌디하게 변화시켜 주는 코너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92호) 원고 모집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교정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 방법

- 논문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 모집 기간** 2022.1.3.(월) ~ 2022.4.3.(일)
- 발간 일자** 2022.4.30.(토)
- 제출 방법** 학회 공식 이메일로 원고 송부 (krscs2000@hanmail.net)

※ 논문 투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정학회 홈페이지(krsc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정본부 「민원톡」

방문자 만족도 설문조사

소중한 의견을 '민원톡'에 충실히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기간 2021. 12. 29. ~ 2022. 1. 31.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QR코드를 스캔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 안내부터
교정본부의 다양한 소식까지!
교정행정과 관련된 궁금증을
교정본부 '민원톡'에게 물어보세요.

교정본부 '민원톡' 이렇게 시작하세요!

1 친구 검색 클릭

2 '교정본부' 검색

3 민원톡(챗봇) 시작

민원톡(챗봇) 대화방



법무부 교정본부